

나스카 문명의 열기구

옛날사람들의 비행노력 ②

불가사의의 그림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다. 사람에 따라 그 일곱가지가 다르기도 하지만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핑크스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무슨 이유로 왜 만든것인지 모르는 것들을 지칭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나스카의 지상화”이다.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의 남쪽에 있는 팜파평원의 땅에 음각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다. 처음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무슨 그림인지 몰라 그냥 고대 페루의 원주민들이 무슨 주술이나 신앙을 위해 그린것 정도로 알고 무관심하게 보아 넘겼다.

그러다 1920년대에 와서 항공기가 실용화 되자 남미에도 항공노선이 생기고 비행기 위에서 이 그림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다시 나스카평원을 정밀히 탐사하여 이것이 단순한 주술이나 신앙용이기 보다는 후세에 남기기 위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나스카의 지상화도 하나 끼

이게 되었던 것이다.

말도 못할 크기의 규모로 그려진 나스카의 지상화를 탐사해 놓고 보니 폭 50m, 길이 2km나 되는 직선의 길이나 활주로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무수한 선이 모였다 퍼졌다 하게 그려져 있고 이 가는 선과 활주로 같은 선 사이에는 800m에 달하는 좌대 같은 모양이 그려진 것도 있다.

그리고 모아졌다 퍼졌다 한 선과 선 사이에는 물고기, 새, 거미, 원숭이, 사람등의 그림이 여러개 그려져 있는데 물고기는 비교적 작아서 25m 정도이지만 거미는 자그마치 46m, 원숭이는 50m인데 비해 날개를 편 독수리의 그림은 몸 길이 120m, 날개를 편 길이 400m, 부리가 250m나 되게 그려져 있다.

이 그림은 적어도 지금부터



46m나 되는 거미 그림

1500여년전 남미 원주민들에 의하여 지표의 검은 흙을 걷어내고 지층의 붉은 찰흙에 정성 들여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41년으로 미국인 폴 코소크 교수가 현지조사를 한 뒤 학계에 보고 하여 알려졌다.

폴 코소크교수의 연구를 전승한 독일의 수학자 마리아 라이체여사는 이 수수께끼 그림에 매료되어 아주 거기에 살림을 차리고 페루의 여러 연구소와 공군의 협력을 얻어 이 귀중한 유적의 보존에 진력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만들었다.

이 그림을 두고 여러가지 이론과 추측이 널리 퍼졌는데 그 주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냥이나 아이를 많이 낳게 비는 주술이나 마술적 의미를 가진 그림이다.

② 당시의 원주민들이 하늘에 제사 지내기 위한 거룩한 제물로 만든 것이다.

③ 천문학적 관측에 쓰인 것이다.

④ 거대한 일종의 달력같은 것이다.

이런 여러 설 가운데 가장 기발한 것이 ⑤ 우주인들이 우

주선 착륙용으로 만든 활주로 이다라고 하여 이것을 데니켄이라는 사람이 소설로 써서 베스트 셀러가 되기도 했다.

미국인 짐 우드먼은 마이애미에 있는 국제탐험가협회의 회원으로 1973년에 세스나를 타고 나스카 상공을 비행하면서 문제의 그림을 보고 그만 매료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 그림의 해명을 시도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기구로 날아 올라

우드먼씨는 먼저 하늘에서 밖에 판별할 수 없는 그림이 옛날 원주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소박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이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보도록 의도하여 그렸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렇다고 부근에 높은 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높은데서 보자면 어떤 방법을 썼을가에 생각이 미쳤다.

그렇다면 고대 페루의 원주민들이 하늘 높이 날아 오르는 어떤 비행체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하고 그런 방면의 유물을 찾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몇가지 그럴듯한 단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페루에는 하늘에서 거대한 배를 타고 내려 오는 모레호나라는 여신에 관한 전설이 있고 수도인 리마의 국제공항 로비의 벽에는 전설을 뜻하는 “하늘을 나는 소년”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다.

또 리마의 국립 고고학 박물관

관에는 하늘을 날아가는 사람들을 그린 고대의 직물이나 도기들이 소장되어 있다.

하늘을 난다는 것은 고대 페루인들에게는 매우 보편적이거나 아니면 동경하는 생각의 일종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나스카에서 출토된 기구모양이 그려진 도기의 파편

우드먼씨는 또 브라질 태생의 구스만 신부가 1709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가서 당시의 포르투갈 국왕을 비롯한 로마교황등 명사들이 보는 앞에서 열기구를 공중에 띄우는 장면을 쓴 기록을 발견했다.

기록에 따르면 구스먼신부는 두터운 양피지로 기구를 만들고 왁스칠을 한 도기 접시를 매달아 그 속에서 나무조각을 불태워 그 열로 기구가 35m나 천정으로 올라 갔는데 커튼에 불이 붙을 것을 염려하여 기구를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다.

기구는 18세기 유럽의 기계 과학이 낳은 산물이며 최초의 유인 비행은 1783년의 일인데 사람이 타지 않은 모형은 훨씬 옛날에도 있었는 듯하다.

그것은 과테마라에서 칠레의 북부에 걸친 일대에 사는 원주민들은 여러가지 재료로 만든 기구를 의식용으로 띄우고 있

는 것으로도 알 수 있으며 브라질 태생의 구드먼신부가 유럽에 건너가 자기네 지역의 방법으로 기구를 띄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드먼씨는 그렇다면 페루에도 기구가 있었을 것이며 나스카에 살던 원주민들은 기구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도록 이 그림을 그렸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여 다시 여러가지로 단서가 될 물건을 찾아 보았다.

원래 나스카 지방의 고대 문화는 아름다운 채색 토기로 유명하다. 그런 토기의 파편에 기구와 아주 비슷한 그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스카에 기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의심치 않았다.

더 찾아보니 이번에는 고대 나스카인의 분묘에서 죽은 사람을 묻을 때 썩은 천이 출토되었다. 이 직물은 현대의 낙하산용 직물과 아주 흡사하여 기구를 만들기에 적합했다.

그는 그의 가설 “나스카 사람들은 옛날에 기구를 띄웠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천으로 기구를 만들었다.

그는 나스카 1호라고 이름지은 이 기구의 제작에 나스카 지방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만을 사용했다. 그리고 옛날 고대 나스카인의 기술과 재료에 충실하기로 하면서 고대 기구의 재현을 서둘렀다.

먼저 나스카 지방의 민속 직물로 기구의 기낭을 만들고 그 모양도 구스먼신부의 기록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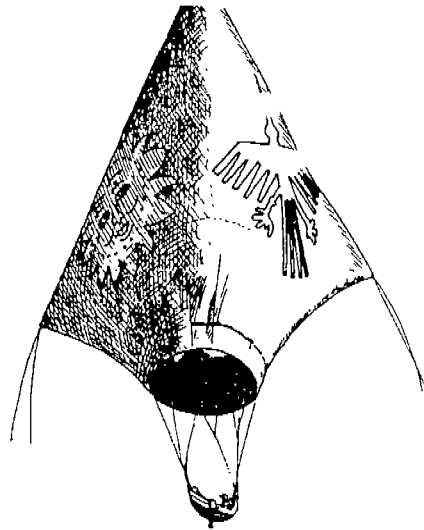
기낭 아래쪽에는 연기를 넣

는 구멍을 만들고 페루에서 나는 갈대로 엮은 바나나 모양의 콘도라를 달았다.

기낭의 높이는 26.5m, 콘도라의 길이 25m의 기구가 완성되자 영국기구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주리안도 함께 타게 되었다.

우드먼은 먼저 불을 뿜 가마를 만들고 연료로 쓸 나무를 채운 뒤 불을 붙이고 그 연기를 기구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기낭의 직물 틈으로 연기가 새어 나가지 않게 며칠동안 연기를 보내어 그을림으로 직물의 틈새가 막히게 만들었다.

1975년 11월 28일 새벽 5시 30분에 우드먼과 주리안이 탄 나스카 1호 기구는 매어 둔 로프를 자르자마자 두사람을 콘도라에 태운채 무서운 속도로



날아오르는 나스카 1호 기구

하늘을 향해 올라갔다.

순식간에 120m 높이에 올라간 기구는 바람 때문에 약간 북서쪽으로 밀려 났다.

기구의 우측 300m 지점에 나스카의 지상화가 보이고 활주로 모양이 뚜렷했다. 기구내의 공기가 차츰 차거워지자 나스카 1호는 천천히 내려왔고 우드먼과 주리안이 콘도라에서 뛰어 내리자 가벼워진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 360m까지 솟은 뒤 수 km 흘러가서 땅 위로 떨어졌다.

꼭 15분간의 일이었다.

이로써 옛날 나스카인들이 기구로 하늘에 올라가 지상의 큰 그림을 감상했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해석되었고 옛날에 기구를 만든 재료가 다 갖추어져 있음을 증명된 셈이다.

옛날 사람들의 슬기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본지는 독자 여러분과의 유대를 위하여 다음 분야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야 : 항공·우주산업과 관련한 기술, 경제등의 논설
유용한 흥미기사, 체험담, 의견등 200자원고지 30장 이내
- ◎현장체험 : 감상 수필 200자원고지 20장 이내
- ◎접수마감 : 매월 말일 도착분을 다음달에 게재
- ◎보 낼 곳 :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1-6(대지빌딩 4층)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편집실